



### 완주 고산농협, 찾아가는 칼같이 서비스 진행

전북 완주 고산농협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가 단순한 식료품 판매를 넘어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고산농협은 최근 이동장터 운영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칼같이 서비스를 함께 진행했다. 이동장터를 찾은 주민들은 평소 무더져 사용이 불편했던 식칼과 생활용 칼을 손질받을 수 있어 만족감을 보였다. 고산농협 이동장터는 교통 여건이 불편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 마을을 찾아 식료품과 생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고산농협은 2025년 9월부터 농촌지역 식품사막 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산·비봉·동상 등 북완주 지역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있다. 농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산농협 이동장터는 매주 3개면 38개 마을, 40곳을 찾아가며 지역민 복지 향상과 농협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칼같이 서비스는 이동장터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 전통문화 품은 고택서... 주민 화합의 장 열려

### 김명관 고택서 '명관이네 잔칫날' 성료... 지역 주민 120명 공연·체험·식사 진행

정읍시는 지난 14일 김명관 고택에서 지역 주민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의 하나인 '명관이네 잔칫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후원하고 해운문화유산진흥원이 주관해 2026년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인 '구관이 명관이네' 기획 사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고택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전통문화를 즐기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행사 일정 소개에 이어 고택 마당에서는 흥겨운 마당극 공연이 펼쳐졌다. 신명 나는 가락과 재치 있는 재담이 어우러진 무대는 참석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공연이 끝난 뒤 주민들은 인근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전통 한우의 아름다움이 묻어나



는 공간에서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했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인 고택이 단순히 보존되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화합하는 살아 숨 쉬는 문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택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문화의 매력을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기획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청우평생학습관, 다문화 심리·소통 프로그램 성료

부안군 청우평생학습관은 지난 16일 다문화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가족 소통 지원을 위해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음 이음, 사랑 빛음'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안군 가족센터와 협업해 관내 다문화 10가정을 대상으로 청우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총 2회차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문제와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부안군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가족을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진안군, 문화유산 보존관리 원칙 교육 시행

진안군은 18일, 진안향교 충효관 강당에서 문화유산돌봄센터(전북동부군)와 함께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상시관리 및 화재대응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 원칙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문화유산돌봄센터의 정경미 센터장이 재난으로부터의 문화유산 예방·보존 및 소유자 관리원칙에 대해서 강의했고, 돌봄센터에서 진행한 문화유산 관리 이력제에 대해서 공유하며 손상 상태와 관리 방법,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렸다. 한편 문화유산돌봄센터(전북동부군)는 국가유산청 복원기금과 전북도의 지원으로 진안(32개소)을 포함한 전주, 남원, 완주 등에 소재하는 385개소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경비보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임실군 드림스타트, 가족외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심민 군수) 드림스타트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16일, 평소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가족 외식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관내 한부모 및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외식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이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마련되었으며 참여 가족들은 지정된 날짜에 시간 차를 두고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낙인감을 최대한 줄이고 평범하게 가족 간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해당 가족들에게 외식 업체와 연계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선물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 /임실=진종영 기자

## 전북대병원, 지역민 대상 구강건강 강좌 운영

### 사랑니 발치 정보 제공... 격월 정기 건강강좌 확대

전북대학교병원이 지역민들의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와 치료 이해를 돕기 위한 건강강좌를 열고 의료 정보 제공에 나섰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5일 어린이병원 2층 완상홀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구강건강' 건강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병원 치과진료처가 주관했으며, 구강악안면외과 신경수 교수가 강연자로 참여해 '사랑니 뽑기 전 알아야 할 Q&A 모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랑니 발치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치과 치료지만 발치 시기와 필요성, 수술 과정 등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의료진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알기 쉬운 설명을 제공했다. 강좌에서는 사랑니 발치가 필요한 경우와 매복 사랑니의 종류, 발치 후 통증과 붓기 관리 방법, 회복 기간 중 주의사항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소개됐다. 또 참석자들이 직접 궁금증을 질문하는 질의응답 시간



도 마련돼 의료진과 시민 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강좌를 시작으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구강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격월 정기 건강강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치주과, 9월에는 치과보철과, 11월에는 소아치과와 분야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정호 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치과 분야의 전문 지식을 쉽게 전달해 지역거점 치과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종철 병원장은 "체계적인 건강강좌 시스템이 지역민의 구강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올바른 의료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남원시, 29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합동 점검

남원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의 하나로 위생 및 보육 부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1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 등 급식시설의 청결 상태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와 결과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관리(매회 1인분 분량, 영하 18°C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점검 기간 중 주요 조리식품을 직접 수거하여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사후 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성심재가노인복지센터, 나은1동에 영양음료 기탁

군산시 나은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성심재가노인복지센터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영양음료(뉴케어) 18박스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성심재가노인복지센터 채병희 센터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은1동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성심재가노인복지센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후원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영양음료는 나은1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8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양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845-93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859-9923	고창지사 563-693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